

가장 좋은 선물

202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성탄절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많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TV에서도 화려한 쇼를 볼 수 없었다. 거리는 한산하고 백화점도 사람들로 북적이지는 않았다. 그 중 더 많은 변화는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선물과 카드도 이전과 현저하게 줄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불필요한 것은 뒤로하고 실질적이고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 서로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게 것이다.

이러한 중에 얼마 전 집에 소포가 하나 왔다. “나에게 올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하여 급하게 열어 보았다. 선물이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집으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다름 아닌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부부였다. 너무 좋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가슴으로 적어 내려간 글이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과 편지를 준 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불편했지만 큰 기쁨으로 받았다. 올해 다른 분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카드 전부가 귀한 것이지만 그 카드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 2세 목회를 하는 후배 부부의 결단과 사역의 의지 그리고 헌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 나였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하니 이것을 어쩌면 좋은가?

나는 그날 그 카드를 읽고 선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다. 고맙다는 단어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거기에다가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생각했을까? 가서 구입해서 포장하여 소포를 붙이고 받기까지 잘 도착할 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를 생각하니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값어치였다. 답례 전화를 하면서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또 다시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슴의 선물을 보냈다고 전했으나 얼마나 내 마음을 이해했을까?

나는 그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Amazon 회사를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시지 않았다. 사랑의 편지를 직접 적으시고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셨을까? 또한 지금도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또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더 믿음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신다. 어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리고 대가가 없는 헌신과 충성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닫는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야할 길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닫는다. 하나님 고맙습니다.